

광주시, 인권 취약 분야 개선 나선다

‘인권단체협력사업’ 19일까지 모집 시민인권 증진·인권존중 문화 확산

광주시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인권 취약분야를 개선할 인권단체 협력 사업을 공모한다.

광주시는 “시민 인권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인 ‘인권단체협력사업’을 수행할 기관·단체를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12년부터 매년 인권취약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인권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기획공모와 일반공모 분야로

나뉘 추진된다.

기획공모 분야는 ▲인권활동가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인권교육 프로그램·교재 및 인권홍보 콘텐츠 개발 ▲2021-2022년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인 기후위기·감염병 등 재난 상황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시민 대상 인권교육 사업 등이다.

일반공모 분야는 ▲인권취약계층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 ▲인권도시 조성 및 광주인권헌장 확산을 위한 사업 ▲인권존중 문화 확산 등 시민의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익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광주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 인권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능력이 있는 단체인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19일까지 시청 민주인권과 인권교류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khs12070@korea.kr)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자체 심사와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수행기관·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광주시 민주인권과(062-613-2072)로 하면 된다.

윤건열 광주시 민주인권과장은 “인권 관련 단체와 협력을 통해 시민 인권을 증진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인권증진 활동에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민간단체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취약계층 ‘주거 상향’ 공모 광주시, 4년 연속 선정

광주시가 반지하 등에서 사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 공모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광주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다.

즉시 이주가 어려울 때 입주 전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 거처도 5곳에서 올해 10곳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5만 8000여 세대 중 지하나 반지하 42세대, 재해 취약 47세대, 지속 관리가 필요한 6060세대 등을 대상으로 이주 희망자를 발굴해 지원한다.

주거 취약계층 600세대를 포함, 3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한 주거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현운 광주시 주택정책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해 주거급여 지원,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며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어린이 과학체험하며 겨울방학 보내요”

市 보건환경연구원, 2월 7~9일 보건·환경·동물 주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과학을 폭넓게 이해하고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초등학교 4~6학년층을 대상으로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은 서구 유촌동 소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 환경, 동물 분야의 실생활용 과학 주제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한다.

수업은 ▲보건교실의 ‘올바른 손 씻기, 현미경 관찰하기, 모기 및 진드기 관찰’ ▲환경교실의 ‘약취 알아보기, 물벼룩 실험교실’ ▲동물교실의 ‘야생동물 알아보기, 수달 모형 만들기’로

운영한다.

참가신청은 16일부터 20일까지이며,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30명씩 총 90명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학생 1인당 1개의 교실만 신청이 가능하며, 과학체험교실은 2월 7일부터 9일까지 교실별로 오전(10~12시), 오후(2~4시) 중 신청한 시간대에 참여하면 된다.

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에게 다양한 실생활 밀착형 과학체험교실을 제공하고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게 교육 목표”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

초과·특수구조 건축물 등 해체 감리 업무...27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안전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건축사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갖추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 감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모집 공고일 전 광주시에 개설 신고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로 지정되면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3개 층 초과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등의 해체에 대해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등록을 희망하는 감리자는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접수하면 된다.

등록자격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감리자는 2월 중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최종 선정되면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해체공사에서 감리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시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12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등재된 곳은 등재사항이 유효하지만 교육 이수 등의 자격요건은 최신화해야 한다. 등재 변경, 휴업, 재개업, 폐업 등은 연중 상시 국토교통부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물관리과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에 많은 지역 전문가의 관심을 바란다”며 “노후 건축물 등 철거시 안전한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설 연휴 대비 시설물 심야 특별 점검’



광주도시철도공사 조익문(왼쪽) 사장은 열차 운행을 마친 시간대인 지난 14일 자정부터 새벽 영업개시 전까지 역사 및 터널 시설물에 대해 ‘연휴 대비 CEO 심야 특별점검’을 했다. 조 사장은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이번 점검에서 직접 점검용 모터카에 탑승해 터널 전차선의 상태를 점검하고, 도보로 선로를 걸으며 레일의 관리 상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 시설물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지하도상가 살리기 앞장

17~24일 ‘임직원과 함께하는 쇼핑 위크’ 추진

광주도시공사는 “설을 맞아 지하도상가 활성화 위해 임직원과 함께하는 쇼핑 위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쇼핑 위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하도상가의 활력 제고 및 지역 상생을 위한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이벤트이며, 공사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해 지하도상가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다.

도시공사는 이번 쇼핑 위크를 통해 ▲상품 구매 유도 및 상가 홍보를 통한 우수고객 확보 ▲시민과

의 소통 강화 및 손님과 상인 간 유대관계 강화 ▲고객과의 소통 및 지역 상생을 위한 ESG 경영 등을 실천할 예정이다.

광주도시공사 정민곤 사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문화가 확산하고 상가 방문인구 감소 등으로 상당수 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계 기관과 연계해 상품 구매활동 행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금·금남로 지하도상가는 의류, 화장품, 금은보석 등 총 499개소의 점포가 입점되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단속

27일까지 특별감시반 가동...주요 산단·하천 주변지역 대상

광주시는 설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감시단속은 오는 27일까지 연휴 전, 연휴기간, 연휴 후 등 3단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대상은 광주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하천 주변 지역이다.

연휴 전인 20일까지는 1600여 개 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홍보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환경 취약 업소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한다. 연휴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는 자치

구와 합동으로 산업단지 주변 하천 등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신고 창구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연휴가 끝난 25일부터 27일까지는 환경관리 영세·취약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기술을 지원한다.

송진남 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설 연휴 기간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튼튼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